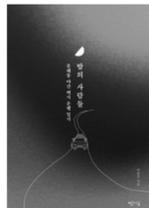


‘빨갱이 자식’으로 불렸던 작가...택시몰며 과거와 조우

밤의 사람들
이송우 | 빨간소금 | 1만5000만원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유독 쓰임새의 범위가 무분별하다. 진보세력이나 특정 지역민을 모조리

‘빨갱이’로 매도하기도 하고 격양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평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면 기다렸다는 듯 이 단어가 튀어나온다. ‘빨갱이 자식’으로 불리며 국가폭력의 잔재를 몸소 감내해야만 했던 한 인물이 있다. 15년 전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딴 그는 다양한 이들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떠올린다. 작품은 야간 택시를 운행하며 만난 우리 시대 사람들과의 대화로 조우한 과거의 자신을 엮어냈다.

신간 ‘밤의 사람들’의 저자 이송우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회부돼 사형수를 지냈던 부친 이창복의 아들이다. 험난한 성장기를 보냈을 거라 짐작은 되지만, 실상은 더욱 충격적이다. 나무에 묶인 채 다가오는 밤에 몸서리쳐야만 했고, 나고 자란 곳을 떠나야 했으며 누구에게도 이러한 가족사를 털어놓을 수 없어 늘 두려움에 시달렸다.

이처럼 어릴 적부터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못 했던 오랜 시간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심리 과제인 ‘사회화’를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못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송우 작가의 부친인 이창복씨.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 인간관계, 협업 구조 등에 눈과 귀를 연 그는 이제 야간 택시를 운전하며 불편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반갑게 인사하고 승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린다. 외진 길은 후진으로 나오는 한이 있어도 진입한다. 회차 시간이라도 길가의 노인은 태운다.”

봉인에서 해제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 마주한 것은 성숙해진 자신이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생활인이자 시인인 작가가 야간 택시를 운행하면서 만난 이들은 하루치 노동을 마친 땀 내는 청년들부터 손을 부르지 못해 손을 들어 택시를 잡는 노인들까지 다양했다. 연인과의 면회 시간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여성한테서 어릴 적 대구교도소에서 아버지를 만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제는 야근하지 않는 광고회사 국장한테서는 큰 기



책 ‘밤의 사람들’을 펴낸 이송우 작가가 야간 택시를 운행하며 촬영한 서울의 도로 야경.

빨간소금 제공

업에서 대역섯 시간만 자며 일하던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린다.

그가 15년 전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따게 된 배경에는 전 직장에서 “승인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내용을 통보받은 게 주요했다.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난 그는 프리랜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다 2023년 중반에 삼성 반도체 사태가 벌어지며 삼성전자의 프로젝트를 끊기다시피 했다. 이에 택시 운행을 병행하게 됐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야간 택시를 운행하면서 만난 승객들은

저마다의 서사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미술을 전공하고 이를 생업으로 삼았던 대리기사, 대기업 임원 출신이지만,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고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대리기사,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몰래 병원을 가는 중년 여성 등이다. 그들의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고 저자는 전한다.

‘빨갱이 자식’으로 자라면서 겪어야 했던 견딜 수 없는 정서로 쓰인 이 책은 보통 사람들과 나눈 대화 묶음이자,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나눈 대화록으로 다가온다.

글쓴이의 견담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 생존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겪은 경험의 산물이자 지독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뼈대다. 그래서일까 작가 이송우는 남을 선불리 낙관하거나 쉽게 비난하지 않는다. 작가는 “아직 우리는 견디는 중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견담을 해내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를 통한 성장 과정은 변화의 크기와 성숙의 깊이를 떠나 종종 되짚어 과거의 자신을 조우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국민을 닮은 대통령, 세종
이영달 | 가디언 | 1만6800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길 잃은 정치에 국민이 다시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은 누구여야 하는가?”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백성과 눈을 맞추며 국정을 다졌다. 세종

은 다스림보다 구조를, 감동보다 지속 가능한 제도를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 절실한 지도자의 요건이기도 하다.

저자는 책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의 어디까지를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한 10가지 국민정책을 내놓는다. 단순히 선거용 공약이 아닌, 책임 있는 설계를 제시하며 결국 실천을 위한 정책의 경쟁이 이뤄져야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사랑한 예술가들
마이클 페피엇 | 디자인하우스 | 2만5000원



반 고흐부터 베이컨, 자코메티, 호안 미로, 앙리 마티스까지 미술 평론계 최고 권위자인 마이클 페피엇이 추앙한 예술가 27인의 삶과 작품이 담겼다. 20세기 거장들과의 인터뷰, 예술 세계는 물론 이들의

성장 환경, 삶의 태도 등을 다루며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나열했다. 고흐의 불운한 일생과 프랜시스 베이컨의 추문으로 얼룩진 사생활은 곧 그들의 작품 속에 투영되는 삶의 흔적인 셈이다. 붓 터치, 물감의 결 하나하나에 새겨진 치열한 삶의 흔적을 쫓다 보면 단순히 작품으로 느껴오던 감상 너머의 심연속으로 자연스레 빠져든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멀리까지 본 예술가들의 초상. 삶의 격랑을 창작으로 맞섰던 이들의 고뇌와 환희 속으로 떠나보자.

나는 왜 따뜻한 대화가 힘들까
로베르트 버디 | 비즈니스북스 | 1만7800원



대화 방식에 따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관계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40년 경력의 의사소통 전문가가 ‘말’이 아닌 ‘대화’를 잘하는 감성지능 대화법을 소개한다.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관계에

있어 대화는 중요한 요소였다. 저자는 책을 통해 여덟 가지 대화 도구를 설파한다. 감정, 상냥함, 관련성, 욕구, 서사, 눈높이, 침묵, 현재 등이다. 이 도구를 사용해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와 상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성공적으로 협업할 길로 안내한다.

책 속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 등 유명인을 포함해 연인, 자녀를 둔 부부까지 말하기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새 정부의 ‘한반도 리빌딩 전략’이 여기에 있다

한반도 리빌딩 전략 2025
정일영 외 | 선인 | 1만9000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남북관계는 서로를 적대하며 단절된 지 오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과 함께 동북아 정세 또한 혼란스럽다. 이전에 없었던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다행히 우리는 조기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 스스로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에서 펼쳐지는 강대국들의 열전 속에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수호와 남북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해 온 각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 교육자와 언론인 등이

함께 지혜를 모은 결과물이다. 이 책의 집필자들은 한반도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반도 리빌딩 전략’을 제안한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는 한 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복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책이 우리의 일상에서,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와 시민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박찬 기자

“끓어오른 상처 직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할 때”

도둑맞은 여자들
엘리스 로넌 | 북라이프 | 2만3000원



출간 직후 전미 대륙을 휩쓴 베스트셀러가 최근 국내에서 출간됐다. 여성들을 향한 억압과 통제, 편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어떻게 고착돼왔는지 살펴

보며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여성은 문화적으로 프로그래밍 됐다. 역사와 사회는 여성을 △가부장제 △7대 죄악 등의 굴레에 가뒀다.

여성에 얽힌 왜곡된 신화와 인식은 수천 년이 흘러 현재의 삶 곳곳에서 아프게 드러난다. 나태, 시기, 교만, 탐식, 탐욕, 정욕, 분노는 피해야 할 죄라는 신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사유 구조로 내면화됐는지 추적하고, 이 억압이 여성의 본능과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지 생생하게 묘사한다.

‘좋은 여성’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부정해야 하는 건 현대사회에서도 사라진 관습이 아니다. 이 작품은 많은 이들이 숨 막히게 만드는 세상의 숨겨진 질서들의 기원을 들춰내고 여성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대담한 도전이다. 이처럼 현대의 삶에서 억눌린 여성의

감정과 욕망,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쫓다 보면 결국 인류가 걸어온 전 역사에 대한 고찰과 재검토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문은 종교, 권력, 질서, 도덕이라는 명목하에 제약되고 왜곡된 인류 모두의 본성과 삶에 관한 이야기로도 다가온다.

마땅히 누려야 했지만 금기시되고 결국 잃어버리게 된 권리와 자유의 해방을 꾀하는 선언문. 이제라도 수명이 다한 가부장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대에 더 부합하는 원칙으로 사회 구조를 재정비할 때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우리 삶을 쪼그라뜨려 온 폭력의 관행과 전술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사가 남긴 상처를 직시해야만 한다.

박찬 기자